

축산 뉴스

식품산업단지 건설 검토

- 콤비나트 형태로 농산물 이용 극대화 -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9월 28일 농어촌개발공사 식품연구소에서 열린 「식품산업 발전세미나」에 참석, 치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료 이용을 극대화하는 장기방안의 하나로 콤비나트 형태의 식품산업단지 건설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종 농산물의 원료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식품공업원료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간의 생산공정을 계열화하는 방안으로 식품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가공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농안(農安)기금, 축산진흥기금의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세미나 열려

- 농개공 식품연구소에서 500여명 참석 -

식품산업의 근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농어촌개발공사(대표 김태경) 주최로 지난 9월 28일 오전 10시 식품연구소(반월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공업체 경영자, 학계 및

단체 인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 가운데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고려대의 유태종교수는 「식품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에 관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촌경제연구원 주용재 박사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체제의 확립」에 대해서, 서울대 이제호교수는 「식품산업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중앙대 김준평교수의 「식량자원 활용과 식생활 개선」, 농어촌개발공사 서기봉박사의 「86, 88 올림픽과 식품개발방안」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질의가 계속되었다.

한편 이날은 82년 1월 1일 이후 개발된 신제품에 대한 전시회도 함께 열렸는데, 86개 업체에서 458개 품목을 출품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미국 채란업계 생산비지원 촉구

- 사료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분지원 농무성에 요구 -

미국 채란업계는 최근 옥수수 등 사료 곡물가격이 급등하자, 늘어나는 생산비 부담 및 줄어드는 수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미농무성에 요구하였다.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책을 보면 미정부보

유 사료곡물을 현물보상제도 (PIK) 시행 이전 가격으로 양축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산란용 메쉬사료가 톤당 12불내지 17불 상승하면 계란생산비는 다스당 (12개) 1.6센트 내지 3.4센트의 상승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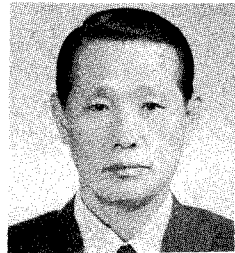
현재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채란업이 성한 조지아주 제인즈빌의 8월초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옥수수수는 부셴당 75센트 내지 1불 6센트 (톤당 U\$27.56~U\$38.95수준), 대두박은 톤당 U\$24.20~U\$28.01가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계란생산비가 다스당 매 1센트 상승될 때마다 미국 전체의 채란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생산비는 1주일에 100만 불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경지면적 감축계획 및 한발의 결과로 빚어진 곡물가격 상승은 미국 전체 채란업계에 1주에 150만불 내지 350만불의 생산비 추가부담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농지 경작자들의 재정적 위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현물보상제도 등 일련의 정부 농업정책이 주요사료 곡물가격 앙등을 초래케 한 바, 생산비 추가부담 요인을 안고있는 양축가들의 지원요청에 대한 미정부의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바이엘화학(주)
동물의약 연구소 발족
- 소장에 이창구 박사 취임 -

우리나라 풍토와 가축 질병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동물용 의약품 개발과 각종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대책을 세우게 될 동물 의약품연구소가 국내 동물약품업계에서는 최초로 바이엘화학(주) (대표: 김길원) 에



(이창구 소장)

의해 발족되었다.

바이엘화학이 동물의약연구소를 설립케 된 것은 각종약품의 보다 정확한 사용과 치료예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므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 양축가의 소득증대를 뒷받침하고 정부방역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동사는 동물의약연구소 소장에 이창구 박사(전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를 영입하고 기타 연구요원을 보강기로 했으며 각종 기자재도 입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 대두생산량 감축

미국농무성은 지난 8월 주요농작물 예상생산량 보고에서 대두는 5,017여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발표했다.

이 수치는 작년의 6,197만톤의 81%에 불과한 것이며, 일부 업계에서는 더욱 생산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올해 미국 대두공급량은 6,255만톤에 그칠 전망이며, 예측소비량 5,500만톤을 감안해 볼때 년말 재고량은 작년보다 500여만톤이 줄어든 745만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지와 축산」 심포지엄 개최

- 산지의 초지화 방안,

식량자금을 제고 방안 등 발표 -

초지와 축산에 관한 심포지엄이 삼양축산 이

전교육재단(이사장 전중윤)과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최로 지난 9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삼양축산 대관령목장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식생활구조의 장기적인 개선과 산지의 초지화 방안, 식량의 자급을 제고방안 등의 다각적인 모색을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는 허신행(농경연) 박사, 김동암(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2천년대에 식량수급전망과 초지개발의 필요성」에서 허신행 박사는 인구증가에 의한 식량 소비량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용 토지는 계속 감소되고 있어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해외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국내 자원을 개발해야 하며 그 효과적인 방법이 산지의 초지개발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김동암교수는 「산지개발의 당면과제와 개발방향」에서 초지조성은 식물과 가축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며 높은 기술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정부의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교수는 현재의 영세성을 지양, 초지개발 단지화를 유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양식품그룹의 전중윤 회장은 삼양축산의 경과 및 현황을 설명한 후 '6백80만ha의 우리나라 산지중 30%인 2백만ha를 개간할 경우 5백만두의 젖소사육이 가능하다'고 초지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들의 능력과 자본을 십분 활용, 축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량절약을 생활화하자

— 10월 16일은 식량의 날 —

수수왕겨 사료이용 가능

최근 옥수수 등 사료곡물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의 왕겨사료 급여량을 늘려야 한다는 보고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농수산부와 사료업계가 제출한 미국사료 및 축산업시찰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퓨리나시험연구소의 왕겨의 사료이용에 관한 연구결과 왕겨에 암모니아 처리를 하여 소에 급여한 경우 약 10%의 배합사료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양적 측면보다는 공복감을 채워주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 캔사스의 Farmland Industry본부의 수수의 사료가치 비교시험에 의하면 옥수수를 기준(100)으로 할 때 닭·돼지사료에 95, 반추가축사료에 80~85(전조수수), 90(미전조수수)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가격조건(경제성)만 맞는다면 옥수수의 50%까지도 수수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수축산신보)

닭고기 가공육제품 생산추진

제일제당(대표 이수빈)은 닭, 오리, 칠면조 등을 원료로 본격적인 가공육제품 생산을 위해 현재 이천공장에서 시제품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닭고기를 원료로한 가공육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에 자극받아 닭고기를 원료로한 프랑크썸세지, 햄 등의 가공품개발에 착수하여 닭고기의 뼈에 붙은 살을 발라내는 디보닝머신 등 관련설비를 수입하여 이천공장에 설치, 시험가동 중인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닭고기소비 증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기술강습회 실시

- 축협, 입식농가 1,800명 대상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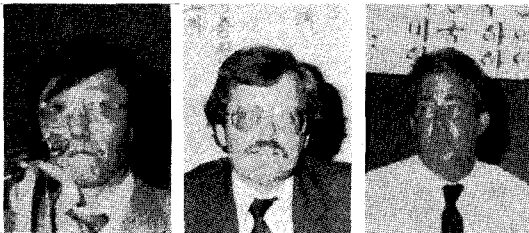
축협중앙회(회장 이득룡)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도입유우 입식농가 1,800여명을 대상으로 낙농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낙농기술강습회는 일반 낙농가의 기술보급을 통한 소득증대와 우유생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실시되는데, 유우의 사양관리, 사육시설과 환경문제, 질병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 9월 23일 원주 • 9월 24일 수원 • 9월 26일 청주 • 9월 27일 공주 • 9월 28일 전주
• 9월 29일 광주 • 10월 5일 대구 • 10월 6일 창원 • 10월 8일 제주

하이라인 · 인디안리버 세미나 대성황

-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도규호텔에서 열려 -



(김인한사장) (벨러스부사장) (부송 박사)

제1회 하이라인·인디안리버 양계기술 세미나가 계명축산(대표 김인한) 주최로 경주 도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하이라인·인디안리버 회원부회장 대



△370여명이 참석한 경주도규호텔의 하이라인세미나

표를 비롯하여 종계업자, 부화업자, 육계생산자 등 370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9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본사의 벨러스(Behles)씨와 부송(Bushong)씨가 초빙되어 Hy-Line·Indian River의 육종개량에 관해 강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9월 5일에는 먼저 계명축산 김 상회장의 인사말과 한국하이라인·인디안리버협력회 이기호회장의 축사 및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김인한 사장의 사양관리 개선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 벨러스(Juergen Behles : 하이라인·인디안리버 미국본사 부사장)씨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미국본사의 농장규모와 시설 등을 소개한 후 하이라인과 인디안리버의 유전능력 개발실적을 설명하면서 실험농장(4개 계사)에서 실험한 결과 타품종보다 우수한 능력이 입증되었다고 전했다. 벨러스씨는 또 로만(Lohmann)회사의 주당 도계능력은 150만수에 달하며 체중, 모양, 용도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규모의 도계시설을 설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시

설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물량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송(Dr Rex Bushong : Hy. IR 미국본사 영양책임자)박사는 닭의 영양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사양표준을 몇가지 예시한 후, 그 방법들이 맞지 않으며, 그대로 하면 체중조절에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초생추, 중추, 대추별로 구분하여 주령별 사료섭취량, 급여형태 사양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사료 급여량을 늘릴 때는 체중이 균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잉급여시와 사료부족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통역에는 김 창한(계명축산)씨가 맡았으며 김인한 사장이 보충설명했다.

다음날인 9월 6일 오전에는 부송씨가 슬라이드를 통해 육계 및 계란의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인한 사장은 교재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김인한 사장이 종계의 사양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신, 질병, 점등, 환기문제 등 참석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다.

한편 몇몇 참석자들은 우리 양계인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 협회나 단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도 각 지역대표들이 모여 양계업자 결속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의 결과를 볼 때 참석자 대부분이 예상 외의 많은 수에 스스로 놀랐으며, 점차 우리의 양계업자들도 합리적 사양관리 및 선진 사양시설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강단에서만 쓰이는 이론위주의 강의에서 탈피, 실제적인 사양관리의 많은 문제점과 개선책이 논의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전산시스템 확대

- 유통정보 분산범위를 마을단위까지로 -

지난 5월 농수산부 과천청사 내에 전국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 가동시킨데 이어 최근 그 분산범위를 마을단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유통정상화 및 가격안정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농수산부는 그동안 전국 15개 주요도시와 29개 도매시장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산지가격등을 조사, 이를 1백52대의 컴퓨터 단말장치와 1백40대의 전산타자기를 통해 수집·분산해 왔는데, 이번의 확대 실시에 따라 농가에서는 집에서 소비지 가격을 알 수 있어 출하시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밖에도 농수산부, 각시도, 농수축협에 유통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전국 20개 도매시장과 60개 공판장에 출하상담실을 설치하여 출하상담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매스콤을 통한 정보분산도 시도할 예정으로 있다.

경운기탑승 운전장치 개발돼

경운기탑승 운전장치가 농부 김두식(전북 김제군)씨에 의해 발명되어 농촌지역의 인력절감에 큰 몫을 해내게 되었다.

이 운전장치는 경운기 뒷 덮개부분에 탑승하여 운전작업하는 것으로 모내기철의 씨래질 작업시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트랙터의 대체가 가능해 노동력과 영농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운전할 수 있고 현재의 기종에 부착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깊게 갈 수가 있어 지력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생산 크게 늘어

-작년 6월말 대비 27% 증가-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윤쾌병)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원유생산량은 작년의 27만 5천 1백 59톤보다 7만 4천여톤이 증가된 34만 9천 3백 81톤으로 나타났으며, 판매량도 작년(28만 4천 6백 39톤)보다 6만 6천여톤이 늘어난 35만 9백 13톤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추세는 그동안 국민생식활수준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우유 등 유제품을 생활화하게 되었고 상품이 다양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축산진흥기금 조성 4천 9백 37억

-축협 9월말 현재-

축협중앙회가 지난 9월 26일 현재 조성한 축산진흥기금은 모두 4천 9백 37억원으로 이중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등 보조금 1천 5백 92억원을 제외하면 현재 보유된 기금은 모두 3천 3백 4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협에 따르면 ▲수입축산물 판매수익납입금 2천 7백 42억원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 납입금 1천 83억원 ▲기금운용수익금 7백 91억원 ▲판매부과금 2백 89억원 ▲출연금 16억원 ▲정보보조금등 기타 15억원 등으로 조성, 이중 수입축산물 판매수익납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 납입금에서 보조금으로 1천 5백 92억원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또 보유기금 운용내역으로는 용자 1천 8백 90억원, 사업자금 7백억원, 고정자산 2백 50억원 준비자금 3백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협은 이 용자기금중 10월분 대출한도를 배정했는데 배정액은 67억 1천 9백만원이다.

사업별 배정내역은 ▲강화도 한우교잡사업 38두분 2천 2백 80만원 ▲육우입식사업 7천 4백 98두분 64억 4천 8백 80만원 ▲한우시범단지조성사업 1백 60두분 2억 4천만원 ▲제주마 증식사업 25두분 7백 50만원 등이다.

따라서 축협이 현재까지 배정한 용자기금은 9백 99억 3천 9백만원이며 이후 배정계획은 2백 58억 4천 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사료작물종자 신청접수

-시군축협통해 20일한-

축협중앙회(회장 이 득룡)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양축가들로부터 각 시군축협을 통해 내년 도 춘파용 목초종자 및 사료작물종자 구입신청을 받는다.

축협에 따르면 이번 신청대상자는 84년도 초지조성대상농가, 초지보완농가, 사료작물재배농가로 되어 있는데 신청초종은 지대별로 적합한 초종중앙축가가 희망하는 초종으로써 종자신청시 종자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납토록 돼 있다.

한편 축협은 지난 2월에 올해 춘파용목초종자 1백 53톤을 전국 양축가에게 공급한바 있다

전국양돈세미나·전시회 개최

-양돈연구회주최 서울농대에서-

전국양돈세미나및 양돈산업전시회가 오는 8~9일 양일간 서울대 농대에서 한국양돈연구회주최로 개최된다.

대한양돈협회·한국종축개발협회·한국사료협회가 후원하는 이날 세미나는 「양돈산업시설현대화 방안」이란 주제로 첫날인 8일에는 흥분표양돈연구회회장의 「양돈장 입지선정과 부속시설」이 규은 마니육종상무의 「소규모 양돈시설」 김 영옥 자연농원과장의 「양돈용 백신의 종류와 그 사용방법」 등이 발표되며 이틀째인 9

일에는 박 응복 서울대교수의 「돼지하리증의 대책」 윤 회진 제일종축농장상무의 「중규모 양돈 시설」 한 백룡 대한양돈협회전무의 「양돈산업의 발전방향」 등이 발표된다.

한편 세미나와 함께 전시장에는 양돈산업현황·사료제품·동물약품·양돈기계기구·오수처리시설·육가공제품·축산관계출판물등이 전시된다.

태국산 옥수수 5 만톤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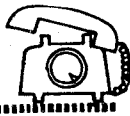
-C&F 톤당 \$145-

최근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태국산 옥수수 5 만톤을 들여오므로써 1백 25만달러의 외화절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업계에 따르면 축협에서 3 만톤, 사료협회에서 1만 5천톤, 제일제당에서 5천톤을 태국으로부터 도입시 태국산 옥수수의 도입가격이 C&F평균 1백 45달러 30센트 정도로 미국 옥수수의 최근가격 C&F 1백 70달러 28센트로 도입하는 것보다 톤당 25달러정도 절약하게 된다는 것.

사료업계는 또 옥수수의 품질은 미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최근과 같은 옥수수가격 고가시대에는 이같은 태국산 옥수수등을 도입하는 것도 외화절약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업계단신



○축협중앙회인사 : 영업부차장에 옥재관(전 특수사업부 과장)씨를 승진발령하고 특수사업부 과장에 최정철씨(전 진흥부)를 발령

○보냉집유차 가동 :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유윤수)은 원유의 부패 방지를 위해 총 30억원을 들여 금년내에 60대의 보냉집유차를 확보·운용키로 했다.

○축산인 조찬간담회 :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들의 유대강화를 위한 축산인 조찬간담회가 지난 9월 9일 롯데호텔 칼튼룸에서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농수산위원, 축협중앙회장, 각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축산물가격결정, 산지의 초지개발, 축산기구 확대의 필요성, 집유선 일원화, 도입사료관세, 낙농기반확립 문제 등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축산업들의 균형있는 발전과 축산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상래 의원(국회농수산위원), 오상현 의원(국회농수산위원), 민병초 의원(국회농수산위원), 김영광 의원(국회농수산위원), 신순범 의원(국회농수산위원), 이득룡 회장(축협중앙회), 전동용 회장(대한양돈협회), 이상윤 회장(대한양계협회), 정태원 회장(한국사료협회), 김의수 회장(한국낙농경영연구회), 이영부 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 신광순 부회장(대한수의사회), 김남용 전무(한국낙농비육협회), 이희구 전무(한국동물약품협회), 박영인 지부장(美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 유윤수 조합장(서울우유협동조합)

○미국 옥수수감산 직년대비 48%예상 : 미농무성은 9월 1일 현재 미국 사료곡물생산량이 1억 4천 2백만톤에 이를 것으로(작년대비 44% 감산) 예상하고 옥수수는 예상생산량 1억 1천 2백만톤으로 지난해보다 48%가 감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사료<주>(대표 문철명) : 서원사료를 인수, 공장수리와 시험가동을 끝낸 동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사료생산에 들어갔다. 동사는 재료비를 많이 들여 이익을 적게 남기고 품질위주로 양축가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사업이념아래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엘화학(주) : 돼지의 만성호흡기 질병(AR·SEP) 예방치료제 트루빈-설파를 개발 곧 시판할 예정이다. 트루빈-설파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로 돼지의 만성호흡기질병 퇴치에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한편 동사는 성장촉진제 바이오녹스에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키타사마이신을 첨가한 사료첨가제 녹스피드를 개발해 닭·돼지의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신제품을 곧 시판할 예정이다.



○신일화학(대표 홍완표) : 사세확장과 영업신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방출장소를 개설하는 한편, 전화를 증설했다.

•경남북출장소(소장 양길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9구 378-13

전화 : 67-6295

•제천출장소(김진석 담당) : 충북 제천시 고암동 388

전화 : 2-1650

•광주출장소(윤종하 담당) : 전남 광주시 운림동 473-1

전화 : 2-4640

•서울사무소(연제철, 박영교 담당)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1-5

전화 : 324-0816, 312-0426

○해외상역상사(대표 강명원) : 사무실을 서초동 뉴욕제과 뒤로 이전하고 사무실 옆에 혼

연 바베큐코너를 겸하여 운영.

이전주소 : 강남구 서초동 6-1(서초상가 나-107)

전화 : 462-7017

○이화약품(주)(대표 이정협) : 동사 이정협사장과 박수경 이사는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서독 Hoechst본사를 방문하여 긴밀한 유대관계를 다지는 한편, 신제품개발에 관해 협의하고 귀국했다.

동사는 그동안 Hoechst사와 기술제휴하여 증체효과가 뛰어난 플라보마이신을 시판해 왔으며, 파이로플라스마병 치료제 베레닐 등의 동물약품을 호평리에 시판중에 있다.

○중앙케미칼(대표 김무진) : 동사는 지난 8월 31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B-13에서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최신 원료합성 시설 등을 갖추어 보다 우수한 품질의 약품을 공급하게 될 이 공장은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80년 이후 그 품질을 인정받아 동남아에 계속 원료동물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동사는 올해에 들어 말레이시아에 이마이신, 퍼마졸-500 다살균, 비타민E-50%, 나이아신 등을 수출함으로써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고 있다.



○도계장 건립 : 춘천축협(조합장 황인성)은 연내로 1억4천여만원을 들여 시간당 1천3백수 처리가 가능한 도계장을 세울 계획으로 있다.

○대용유원료 관세율인하 : 정부는 오는 84년부터 대용유원료의 관세율을 완제품과 같은 20%로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업계에서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대용유원료의 관세율(25%)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 건의함에 따라 정책조정심의회회의의 심의를 거친데 따른 것이다.

○전국축산인 테니스 대회 : 전국축산인테니스회(회장 송찬원) 주최로 10월 9일(일) 오전 8시반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열린다.

열네번째를 맞는 이번 축산인 테니스 대회는 봉황배, 금배, 은배 등 3종별로 나누어 실시되며, 한국화이자(주)(대표 김종상)에서 협찬한다.

○양돈 세미나 개최 :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는 9월 12일 5백두 이상의 전기업양돈장 대표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도 유스호스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설동섭(가축위생연구소) 소장의 「우리나라 가축질병 연구현황과 발전방향」, 케네드(미대두협회 가축영양책임자) 박사의 「돼지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의 고찰」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유운수) : 동조합은 원유품질제고의 방안으로 원유의 품질이 우수한 낙농가에 대해 시상제도를 마련, 매월 계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동조합이 축사 등 제반 위생 시설과 원유의 품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낙농가를 선정, 기념품과 표창장을 수여한 바 반응이 좋게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한일농원(대표 차두홍) : 지난 9월 11일 영업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금실적부진 지양과 영업활동 강화를 위해 사내교육을 실시.

이날 강사로는 안영일(한국판매전략연구소 경영관리원) 원장이 초빙되었으며, 한일농원, 한일사료공업(주), 부산 한일부화장의 영업부 직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자사의 발전을 다짐했다.

또 9월 24일에는 생산부, 영업부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난계대전염병 및 비난계대전염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날 강사는 김선중(서울대)박사가 맡았다.

한편 동농원은 9월 1일부로 사원의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김익균 : 특수영업부 과장대리(전 특수영업부 판매주임)

최동휘 : 영업부 판매주임(전 영업부기사)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이남재) : 동협회 임직원 및 회원 일동은 지난 9월 7일 KAL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참배,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한편, 9월 10일에는 천인공로할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모임을 갖고 성명서 및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홍천축협 : 18개 축산계에 434명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동조합은 오는 10월 5일부터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해 조합원 권익증진을 꾀할 예정이다.

○**가락동 종합시장 운영협의회** : 농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출하를 주도하게 될 가락동 종합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수산부제 1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였다.

한편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이 종합시장은 농수산물 유통훈련원, 축산물시장, 양곡시장 등의 설치문제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국성형제지 (대표 이종선)** : 위생적 종이난좌 메이커인 동사는 원활한 업무 추진과 양축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남시 전화를 신설하였다.

전화 : (성남) 43-1042, 41-0171

○**서울미원 <주> (대표 임철수)** : 지속적인 판매신장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판매부에 신입사원을 공채하였다.

- 김수홍 (강원대 축산과졸)
- 김경준 (고려대 축산과졸)
- 하태욱 (서울대 축산과졸)
- 김연수 (건국대 축산과졸)
- 박태일 (건국대 축산과졸)
- 이원주 (건국대 축산과졸)

또한 생산시설 확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분체사료만 생산하던 생산체제에서 사양가들에게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펠렛 신제품을 개발, 9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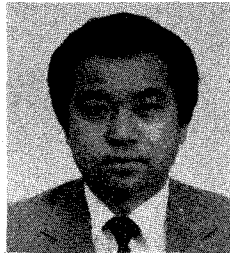
개발된 신제품으로는 자돈의 성장율을 증진시켜주는 하이점프(젓먹이 쾌지용), 지방이 적고 살코기 비율이 높은 하이린 미트(육성돈용), 제 1위를 키워 주는 송아지 조기 이유용 카프밀(어린 송아지용), 요소 무침가 형태로 고능력우의 산유량을 향상시켜 주는 하이밀크(착유 1호용), 유지율 개선용인 하이페트(착유 2호용)와 도체등급 개선 효과가 큰 하이비프(고깃소 후기용) 등인데 일반적인 펠렛사료 제조 경향에

편승해서 생산하기보다는 특유의 수익 5단계 프로그램에 따른 사양가 수익증진을 위한 고효율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사양가들로부터의 많은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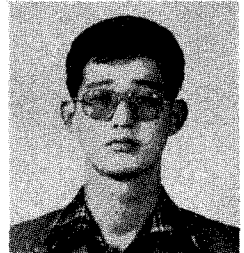
○**삼화가축약품 (대표 이병호)** : 동사는 중계장의 효율적인 질병방역을 위해 우수한 복합백신(Triple백신)을 절찬리에 판매중에 있으며, 앞으로 감보로, EDS의 복합백신을 수입 판매하게 됨으로써 확장되는 업무를 위해 9월 25일부로 영업부에 씨를 신규 채용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중림동 129번지 태림빌딩 202호(서부역 건너편)

전화 : 392-6915



(이각모 사장)



(이기민씨)

○**동방화학 <주> (대표 이각모)** : 지난 8월 1일부로 주식회사 동방으로 법인체로 바꾸고 새출발을 하는 한편, 이사장은 지난 8월 22일부터 호주에서 있었던 세계 수의사회에 참석 후, 미국의 업존 본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했으며, 사업계획 추진 방향에 의해 미국 곡물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시카고 곡물시장과 미국의 큰 벨트지역을 시찰하였다.

미주지역 축산인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그들과 상호무역관계에 대한 협의를 통해 괄목한 결과를 얻었으며 해외를 향해 뛰는 <주>동방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귀국길에 일본에 들러 신제품 개발에 합의한

후 9월 9일 귀국하였다.

특히 미국 방문중 돼지 마이코플라스마에 권위있는 Dr. HAMDY와 그의 연구진들을 만나 앞으로의 제품 개발방향과 세계 질병 발생 동향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대양축산상사(대표 김복일) : 전 대동축산기구상사가 상호를 바꾸고 새롭게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일본 Toja 사의 양돈용 적외선 보온 램프를 직수입하여 10월 1일부터 판매하게 되었다.

○한양수의약품(대표 조훈영) : 업무의 효율화와 영업의 신장을 위해서 지난 8월 1일부로 김성일(전 한국동물약품 영업이사)상무를 영입하였다.

○두산곡산(대표 이채언) : 양축가들의 서비스 일환으로 「축우 사양프로그램」을 10월 1일부로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낙농, 비육(한우, 육우교잡종), 초지관리 등이 자세히 수록되었다.

○덕림산업(대표 최형철) : 시간당 2,000수 처리능력의 최신 자동도계장시설이 호남지방의 심장부인 전남 광산군 하남면 하남공단 21블럭에 설치되어 10월초에 가동될 예정으로 있어 광주지역의 육계생산자들과 제육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자동 탕적기와 탈모기를 포함한 오버헤드 콘베어식에 의한 최신시설을 갖추면서도 국내 여건에 맞도록 경제적으로 설계된 이 도계장 시설은 네덜란드의 Meyn사에서 전량 수입되었다.

이로써 덕림산업은 국내에서 다섯번째로 Meyn 도계기를 설치한 도계장이 되었다.

○과학축산시스템(대표 박만후) : 각종 축산용기계와 기구를 제작 수출입하고 있다.

서독 최대의 분무기 메이커인 모탄(Motan)사와 독점공급 계약을 맺고 연막 분무기인 스윙포

그(swing fog) 배부식 제트엔진 분무기, 폰탄(Fon tan) 배부식 수동분무기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보급하기로 한 바, 일차로 스윙포그 연막 분무기를 도입하여 보급 중에 있다.

이 기기는 그간 보급되고 있던 타 기종과는 달리 경유나 물에다 살충제, 살균제 등을 희석하여 사용함으로써 어디서나 손쉽게 쓸 수 있으며,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 배기가스열에 의해서 약제가 변성되지 않으므로 약효가 높다고 한다.

○천안 양계업협의회(회장 박홍범) : 천안시, 아산군, 천원군, 일대의 채란업자들은 지난 9월 7일 천안문화원 소회의실에서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회원의 공동이익증진과 채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 협의회는 9월 1일준비위원회(회장 최상욱 : 장재농장) 모임을 대한제당무지개사로 천안지소(소장 : 김의석)의 협찬으로 가진 바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박홍범(홍익농장)

부 회 장 : 홍성희(남창농장)

운영위원 : 신재욱(아주농장), 채상욱(장재농장), 장규환(안풍농장)

총 무 : 김규환(구성양계장)

감 사 : 김종호(쌍용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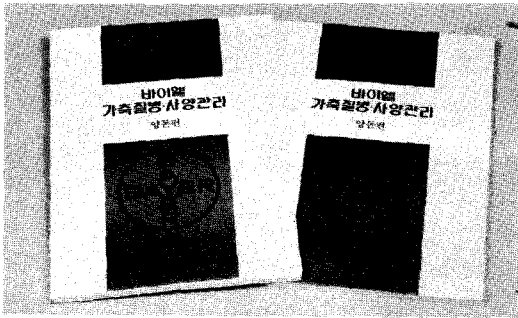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 세사물린(설사 전문예방제), 프로세락(혼합제제) 등의 신제품을 개발, 판매 중인 동사는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영업부에 김동호(수의사, 경북대졸)씨를 특채했다.

이전장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56 (신라빌딩 2층)

전화번호 : 792-7887, 7212(종전과 같음)

○ 한국바이엘화학(주) : 연구개발부 이갑 재박사와 조영휘과장은 9월 14일 해외기술연수와 제재연구실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독일 바이엘사로 출국.

한편 신규사업개척을 위해 유병문부장(서울대 수의과졸)과 동희조(서울대 수의대졸)씨를 특채하고 사내교육과 양돈방역 기술정보제공을 위해 바이엘 가축질병, 사양관리(총 142페이지) 책자를 발간했다. 동사는 앞으로 양계편, 낙농 비육편을 계속 발간 할 예정.



○ 대한제당(주) : 신제품 무지개 콘소 비육 사료를 시판. 동제품은 당밀첨가수준을 높여 기호성이 높고, 조립자형태의 원료를 사용해 소의 생리에 적합하며 영양분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미원 L-라이신 판매 급신장 : 73년부터 L-라이신을 개발·생산하여 미주, 유럽지역 10여개국에 수출해 온 미원(대표 홍연석)은 최근 내수판매에 주력한 결과, 8월부터 월간 100톤을 생산해 내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L-라이신은 필수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가축의 성장발육 촉진에 큰 효과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격이 비싼 관계로 사용을 꺼려 왔었다. 그러나 사료배합기준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었고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이점으로 각 사료업체에서 첨가제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유성 브로일러(대표 류종래) : 대구시에 위생적인 도계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착공하여 9월에 완공을 보게된 유성브로일러는 대구시 서구 이곡 692-1에 소재하며, 시간당 3,000수 처리능력의 최신식 완전자동 도계시설을 네덜란드의 Meyn사에서 도입, 10월 초 순 가동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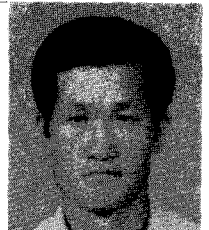
콘베어 라인 위에서 일체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이 시설 중에는 자동탕적과 탈모는 물론 방혈기, 전기충격기, 내장 적출기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기계의 수입대행과 엔지니어링 일체는 과학축산시스템(대표 박만후)이 담당 하였다.

류종래 사장은 대구축협조합장과 대한양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황영구 회장



▷류종래 사장

○ 한국종축개량협회 황영구 회장 : 지난 8월 16일 출국, 미국 동북부지역 낙농업계를 시찰했다.

특히 황회장의 이번 방미는 종축개량용 젖소(고능력우) 1,000두를 도입하기 위함인데 현지 검수지도감독을 끝낸 후, 미 홀스타인 등록협회와도 여러가지 업무협의를 마치고 9월 17일 귀국했다.

○ 경북축산(주)(대표 남 구한) : 동사는 10월 1일 0시를 기해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영천 <0563>4-1121~7